

The Influence of Harsh Parenting and Ego-resiliency on Aggression of Children

- Focusing on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Teachers at a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

Mun Seol Eom^{1#}, Yang Hee Lee¹, Sang Won Kim²⁺

¹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Korea

² Family Translational Research Group, New York University, 345 E. 24th Street, New York, NY, 10010, United States

Abstract

Aggression displayed by children is a widespread social problem. Children may be aggressive due to the influence of violent parenting in the home environment, which could be mediated by ego-resiliency. This study proposed a hypothesis that the level of ego-resiliency depends on the child's relationship with teachers at a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Based on this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harsh parenting and ego-resiliency on aggression of children, focusing on the moderated mediating role of teachers at a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The responses from 606 4th-grade children who attended the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were extracted from the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Panel and analyzed to test the hypothesized model. The findings showed that ego-resiliency mediated the path from harsh parenting to aggression of children and the path depended on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at the center. This study reaffirmed the role of teachers at the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who may contribute to building an environment where children can cope well with adverse events at home.

Key words: ego-resiliency, relationship with teachers at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aggression, harsh parenting

1. 서론

공격성은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에 손상을 주려는 행동으로(Park, 2018), 학교폭력은 아동의 공격성이 발현되는 대표적 형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Kim, 2000). 폭력행동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Olweus(1979)의 연구에서도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이 안정적으로 폭력행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교육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보고한 초등학생은 전체의 3.6%를 차지하여 다른 학교급(중학생 0.8%, 고등학생 0.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가해경험 역시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 1.4%로 다른 학교급(중학생 0.3%, 고등학생 0.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2019. 8. 26.).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28.2%)

The 1st author: Mun Seol Eom, Tel. +82-02-760-0719, Fax. +82-02-760-0525, e-mail. crcenciams@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Sang Won Kim, Tel. +82-02-760-0719, e-mail. sangwon.kim@nyu.edu

또는 가해행위자(23.9%)로서 학교폭력에 노출된 초등학생의 비율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 이 같은 통계수치는 초등학생의 공격적인 성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초등학교(2,418교)에 실시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을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부모는 아동이 생애 초기부터 상호작용하는 대상으로 아동에게 가장 근접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심리사회적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Park & Noh, 2020). 이 때문에 아동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주요한 사회적 맥락으로 언급된다(Flouri & Midouhas, 2017; Kim & Jang, 2017; Kim & Jin, 2014; Kim & Kang, 2020; Wang & Kenny, 2014). 그 중 특히 부모의 폭력적 양육방식은 아동의 공격성에 비교적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Auslander, *et. al.*, 2016; Chen & Raine, 2018; Gilbert, *et. al.*, 2009; Kim & Chung, 2013; Lee & Kim, 2018; Park, *et. al.*, 2014; Qi, 2019; You & Lim, 2015). 폭력적 양육방식은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가혹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을 통칭한다(Kim & Kim, 2019).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공격성 발현 간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공격성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지만 부모의 학대가 이후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그 역방향보다 크며, 특히 빈곤가정의 아동의 경우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14). 더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적·신체적 학대 경험이 심각할수록 높은 빈도의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Auslander, *et. al.*, 2016).

부모의 폭력적 양육방식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그 중 해당 경로 내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중

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자아탄력성이란 외부의 스트레스 또는 부정적 상황에 놓일지라도 유연한 대처를 하면서 자신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Ju & Lee, 2008; Jun, 2014; Kim, 2000). 부모에게 심각하게 학대를 당한 아동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Ju & Lee, 2008). 그러나 위기 상황에 놓였을 지라도 아동이 탄력적일 경우 공격성을 포함한 문제행동을 더 적게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Kim & Lee, 2010; Kim & Ju, 2013; Oh, *et. al.*, 2018). 또한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Jun(2014)의 연구에서도 남아의 높은 탄력성이 낮은 공격성을 예측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동의 공격성을 포함한 문제행동에 대한 개인내적 보호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의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아왔다. 관련하여 Lee(2015)에 따르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및 거부적 양육태도와 같은 부정적 양육 방식이 청소년의 낮은 자아탄력성과 높은 공격성을 예측했으며, 자아탄력성이 부정적 양육 방식과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이 많은 청소년은 이후에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지만, 자아탄력성이 학대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밝혀져(Kim & Kim, 2018), 폭력적 또는 학대적 양육과 같은 부적 경험을 한 아동에 있어 자아탄력성의 역할에 대한 조명과 증진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부수적으로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 간 관계를 매개하여 문제행동의 감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전반적으로 아동의 삶에서 긍정적으로 역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Kim & Woo, 201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폭력적 양육 방식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는 경로는 자아탄력성의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타인

과의 긍정적 관계에서 얻어지는 지원을 통해 자아탄력성은 향상 될 수 있다(Ju & Lee, 2008; Thompson, et. al., 2006). 특히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양육방식으로 인해 긍정적인 지원이 어려울 경우 아동에게 있어 교사가 유의미한 성인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데(Kim & Lee, 2018), 실제로 교사와의 애착은 가정 외 사회적 지지체계로 작동하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Ju & Lee, 2012). 빈곤 상황에 놓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애정 및 감독, 일관적 양육태도와 같은 가족관련 변인뿐 아니라 교사와 우호적인 관계도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바 있다(Lim, 2013). 또한 학대 맥락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타났는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보호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 교사와의 유대감이 자아탄력성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설명하였다(Choi, et. al., 2018).

전술하였듯이,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의 경우 이들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놓일 수 있으며,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사회적 자원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 때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사회적인 자원으로써 유의미하게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Kim & Park(2015)의 연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의 가족, 학교 교사 및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아동이 가족과 센터 교사의 지지를 높게 인지할 때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법제화 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빈곤 아동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4,211개소가 있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총 109,610명에 달하며, 그 중 초등학교 비율(79.8%)은 가장 높은 편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지역아동센터는 가구 소득과 특성, 연령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돌봄 취약 아동이거나 3명 이상 다자녀 가족, 또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센터는 아동 돌봄 역할을 수행하며 주로 방과 후에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아동발달에 있어 가정 및 학교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는 한 주체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Lee, et. al., 2018).

지역사회 환경을 신뢰롭고 긍정적으로 인식했을 때 아동발달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Park, et. al., 2017).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물질적·사회적인 결핍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지역사회 유대감이 그 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Choi & Min, 2020)는 부모의 폭력적인 양육방식과 같은 부적 경험에 노출된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써 작동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적 양육방식이 탄력성을 매개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가 해당 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삶에 있어 지역아동센터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역아동센터가 탄력성 증진의 방식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의 역량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음에 대한 경험적 근거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 조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 온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였다. 2014년부터는 2기 조사(2014~2016)가 시작되었으며, 역시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총 네 차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에는 보건복지부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현, 아동권리보장원)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진행되었다. 조사내용은 크게 개인발달과 발달환경,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경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17). 본 연구에서는 2기 패널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로 조사에 참여해 온 606명의 아동의 응답이 포함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폭력적 양육방식과 탄력성이 이후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영향이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폭력적 양육방식, 탄력성, 공격성,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가 본 연구에 변수로 포함되어 있으며 그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폭력적 양육방식

본 패널 조사에서 폭력적 양육방식은 Huh(2000)와 Kim(2003)이 개발한 척도에서 일부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총 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hi^2 = 17.264$ (df=2, $p = 0.0002$), CFI = 0.984, TLI = 0.953, RMSEA = 0.112 (90% C.I. 0.067 - 0.164), SRMR = 0.021]. 문항에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응답보기는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폭력적 양육방식 응답을 역코딩하여 네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0.829이다.

2)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

본 패널 조사에서 청소년 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현 아동권리보장원)이 구성한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17) 다섯 문항을 사용하여 질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요인 분석 과정을 통해 ‘우리집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 문항을 제외한 총 네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 고민이 있을 때 잘 들어 주신다) [$\chi^2 = 13.105$ (df=2, $p = 0.0014$), CFI = 0.991, TLI = 0.972, RMSEA = 0.096 (90% C.I. 0.051- 0.148), SRMR = 0.016].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 역시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5점)’로 질의하여 역코딩해 평균값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1차년도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 응답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신뢰도 계수는 0.861이다.

3) 자아탄력성

본 패널조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 & Kerma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한 Yoo & Shim(2002)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chi^2 = 128.654$ (df=355, $p = 0.000$), CFI = 0.956, TLI = 0.944, RMSEA = 0.066 (90% C.I. 0.054 - 0.079), SRMR = 0.034]. 탄력성은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등을 포함해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응답보기는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 탄력성에 관한 응답을 역코딩 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0.877이다.

4)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패널조사에서는 Jo & Im(2003)이 개발한 척도에서 일부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문항을 제외한 다섯 문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chi^2 = 6.429$ (df=5, $p = 0.2667$), CFI = 0.999, TLI = 0.997, RMSEA = 0.022 (90% C.I. 0.000- 0.064), SRMR = 0.011]. 공격성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응답보기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 공격성 응답을 역코딩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신뢰도계수는 0.823이다.

3. 연구모형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위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이 수식 1과 2로 나타낼 수 있다. 수식1은 자아탄력성(M)에 대해서 폭력적 양육방식(X),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W), 그리고 이 둘의 상호작용이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식2는 폭력적 양육방식(X)이 자아탄력성(M)을 매개로 공격성(Y)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해석의 용이성과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구성하는 폭력적 양육방식(X)과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W)에 한하여 평균 중심화 처치를 하였다.

$$M = i_M + a_1 X_c + a_2 W_c + a_3 X_c W_c + e_M \quad (1)$$

$$Y = i_Y + c_1 X_c + bM + e_Y \quad (2)$$

자료 분석은 Hayes(2018)가 개발한 SPSS Macro인 Process 3.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직접효과의 경우 p값을 기준으로 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단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의 경우 계수 각각이 정상분포를 따른다 하더라도 두 계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은 정상분포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해서 신뢰구간을 생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단하였다. 이 때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미하다고 해석한다(Lau & Cheung, 2012). 무응답은 EM(Expectation-Maximization)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기술통계는 <Table 1>과 같다.

공격성의 평균은 2.37(SD = 0.72), 자아탄력성은 2.80(SD = 0.63),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는 3.94(SD = 0.86), 그리고 폭력적 양육방식은 1.80(SD = 0.7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각 변수에 해당하는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했으나 <Table 1>에는 각 변수를 구성하는 세부문항의 기술 통계도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Process 분석을 통해 얻어진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해당 모형의 F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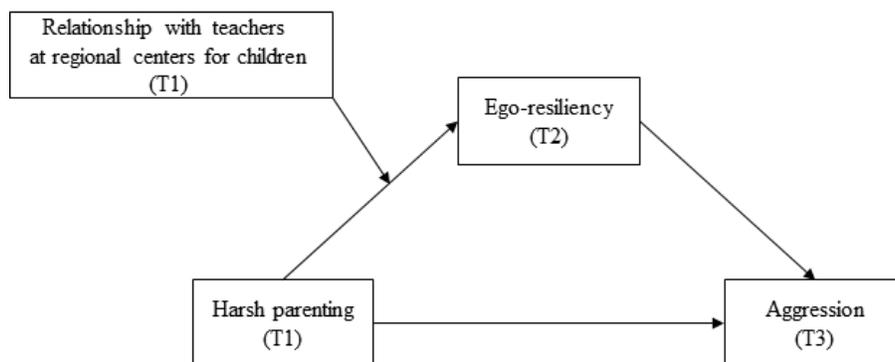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odel variables

Variables	M	SD	Skewness	Kurtosis
Aggression	2.37	0.72	-0.52	-0.94
I sometimes find fault with small things.	2.40	0.75	-0.52	-0.38
Sometimes I interferes with what others do.	2.41	0.75	-0.48	-0.27
If I can't do what I want, I refute or come at against it.	2.32	0.91	-0.31	-1.35
I fight with little things/ I fight with nothing.	2.37	0.82	-0.48	-0.89
I sometimes get angry all day.	2.33	0.93	-0.28	-1.36
Ego-resiliency	2.80	0.63	0.17	-0.88
Even if I suddenly get surprised, it's okay, and I get through it.	2.85	0.80	-0.01	-0.96
I tend to give a good impression on others.	2.79	0.74	0.11	-0.70
I am a very energetic person.	2.84	0.84	0.11	-1.28
I am more curious than others.	2.85	0.84	0.00	-1.10
I think a lot before I act.	2.68	0.77	0.22	-0.49
I like to do new and different kinds of work.	2.88	0.84	-0.05	-1.15
My life is full of exciting things every day.	2.77	0.83	0.08	-0.85
I can confidently say that I have a strong will.	2.73	0.82	0.15	-0.76
I will be okay right away if I get angry at someone.	2.74	0.84	0.02	-0.73
I like most people I meet.	2.89	0.85	-0.12	-1.10
Relationship with teachers at a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3.94	0.86	-0.76	0.44
The teacher listens well when I am in trouble	3.96	1.03	-1.06	0.96
The teacher is kind	4.20	0.90	-1.01	0.70
I am comfortable when interacting with teachers	3.93	1.05	-0.79	0.15
The teacher knows well about how I live	3.67	1.13	-0.65	-0.15
Harsh parenting	1.80	0.73	1.08	0.84
When I do something wrong, my parents/guardians scold me severely.	2.30	0.98	0.29	-0.92
If I do something wrong, my parents/guardians try to do anything they can to hit me.	1.74	0.88	1.06	0.31
My parents/guardians have frequently treated me badly so that there are bruises and scars on my body.	1.62	0.88	1.29	0.69
My parents/guardians have frequently spoken strong language or swear words at me.	1.55	0.83	1.46	1.31

Table 2. Direct effect of harsh parenting on aggression through ego-resiliency

Variable	Coefficient	SE	t	p
Constant	3.19	0.26	20.22***	0.00
Harsh parenting	0.02	0.38	0.58	0.56
Ego-resiliency	-0.40	0.04	-9.31***	0.00

***p < .001

53.414(p < .001)로 해당 모형의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으며, 그 설명력(R²)은 0.262였다. 세부적으로, 폭력적 양육방식은 이후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공격성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Table 3. Effect of harsh parenting on ego-resiliency moderated by relationship with teachers at a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Variable	Coefficient	SE	t	p
Constant	3.03	0.08	36.24***	0.00
Harsh parenting	0.01	0.04	0.20	0.84
Teacher	0.07	0.03	2.48*	0.01
Harsh parenting * Teacher	0.10	0.04	2.33*	0.02

***p < .001, *p < .05

$$Y = 3.19 + 0.02X_c - 0.40M$$

다음으로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에 의해 조절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해당 모형

Table 4. Indirect effect of harsh parenting on aggression through ego-resiliency, depending on the level of relationship with teachers at a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Indirect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Level of relationship with teachers at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a	L	-0.941	0.033	0.024	-0.011	0.081
	M	0.059	-0.005	0.016	-0.036	0.025
	H	1.059	-0.043	0.025	-0.094	-0.006

^a 16, 50, and 84 percentile of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t a regional center were marked as L, M, H.

의 F값은 38.909(p < .001)로 해당 모형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R²)은 0.245였다. 세부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 3.03 + 0.01X_c + 0.07W_c + 0.10X_cW_c$$

마지막으로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값은 -0.038(BootSE = 0.019)로, 신뢰구간이 -0.077 ~ -0.003로 구간 내 0이 포함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즉,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Pick-a-point방식을 사용하여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 정도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때는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그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주는 그래프는 <Figure 2>와 같다.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폭력적 양육방식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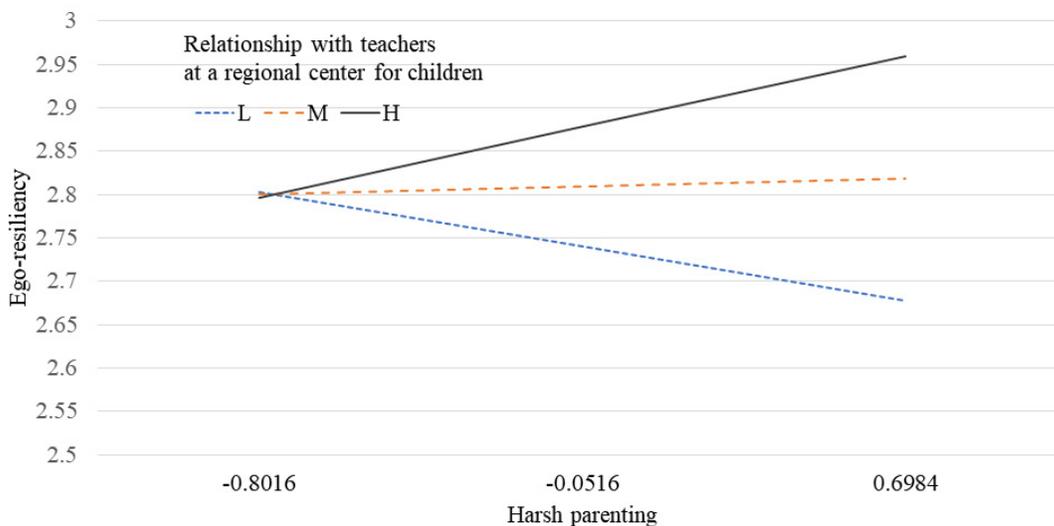


Figure 2. Effect of harsh parenting on ego-resiliency moderated by relationship with teachers at a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기 패널 1-3차년도 자료(2014~2016)를 활용하여 2014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606명 응답을 이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며, 주요 결과에 따른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적 양육방식과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를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폭력적 양육방식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낮아진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공격성 발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학대 경험이 낮은 자아탄력성을 예측한다는 Ju & Lee(2008)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추할 수 있으며, 부모의 과보호 및 거부적 양육태도와 같은 부정적 양육방식 또는 학대 경험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된다(Kim & Kim, 2018; Lee, 2015). 이 같은 결과는 아동의 자아탄력성 증진의 필요성으로 이어지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지역사회 내 아동 관련 기관의 연계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Park, 2018).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아동권리교육, 아동안전교육 외에도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 연계 영역으로 구성된 기본 프로그램과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시에 자아탄력성과 같이 아동이 위기 상황을 다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역량 훈련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다면, 아동이 가족 내 폭력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자력화 하여 다루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 간 편차 및 센터 교사의 업무 과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구,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및 시도지원단에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과 교사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 지역아동센터에 배포하거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개별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가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에 따라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뒷받침된 바 있다(Ju & Lee, 2012; Lim, 2013; Choi, *et. al.*, 2018). 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학교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Lee & Han(201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 등을 포함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적 차이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으나, 후속연구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역할을 탐색할 때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가 폭력적 양육방식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있어 교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주목하게 한다.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돌봄의 역할 및 학교공부와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의 역할 뿐 아니라 상담자 역할을 포함한 정서적 지지체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전문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각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간 편차를 최소화 하며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의 상황에 민감하게 상호작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교사 훈련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통해 형성할 수 있는 보호망이 보다 견고하게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가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아동의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 때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가 부모의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을 거쳐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물질적·사회적인 결핍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 사회 유대감이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Choi & Min, 2020), 폭력적 양육방식으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서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지역사회 내 사회적지지 체계로써 기능할 수 있다.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전문 역량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분야별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종사자 교육과정에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삶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의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그 파급효과가 커질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환경적 지원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고용안정성의 측면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지원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대체로 상시 인력 부족과 더불어 교사(종사자) 급여 및 고용불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Park, 2019).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과 동시에 이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성이 균형적으로 고려되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폭력적 양육방식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탄력성과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자원으로서 지역아

동센터 교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여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모델변인에 있어 아동의 자기보고로 이루어진 응답을 사용하였다. 폭력적 양육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허용도가 높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폭력적 양육방식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후 연구가 수행될 시에는 아동의 주관적 보고와 더불어 부모 또는 지역아동센터 교사 등 제3자의 보고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종합적으로 변인들 간 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2차 자료인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조사의 경우 동일 대상에게 여러 시점에서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변인들 간에 종단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패널문항을 구성할 때 다양한 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별 조사 항목의 설문 문항을 축소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변인에 있어서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다각도로 이해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제한점을 반영하여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실제적인 개입의 방안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지만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 이용 빈도, 시간 등 실질적인 이용에 관련한 변인을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과 가족의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센터를 이용하는 빈도나 활용 서비스 유형 등이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를 보고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폭력적 양육방식이 탄력성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가 지역아동센터 교사

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어서 고려하지 못했으나, 후속연구에서 개별 아동의 이용 행태를 고려할 수 있다면 지역아동센터 및 센터 내 교사의 역할에 대한 세분화되고 실효성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uslander, W., P. Sterzing, J. Threlfall, D. Gerke, and T. Edmond. 2016. Childhood Abuse and Aggression in Adolescent Girls Involved in Child Welfare: The Role of Depression and Posttraumatic Stress.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Trauma*. 9(4): 359-368.
- Chen, F. R. and A. Raine. 2018. Effects of Harsh Parenting and Positive Parenting Practices on Youth Aggressive Behavior: The Moderating Role of Early Pubertal Timing. *Aggressive Behavior*. 44(1): 18-28.
- Choi, Jung Won and Eun Young Jo.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 and Peer Attachment on Aggression amongst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s: An Application of Latent Growth Modelling. *Studies on Korean Youth*. 31(1): 33-52.
- Choi, Ok Soon and So Young Min. 2020. The Moderating Role of Community Ti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ivation and Aggression of Adolescents Using Community Child Centers.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11(1): 47-76.
- Choi, Yoo Nam, Ji Yeon Kim, and Ji In Shin. 2018. Factors Influencing Ego-resilience in Adolescents Suffering from High-risk of Abu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31(1): 1-18.
- Flouri, E. and E. Midouhas. 2017. Environmental Adversity and Children's Early Trajectories of Problem Behavior: The Role of Harsh Parental Disciplin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1(2): 234.
- Gilbert, R., C. S. Widom, K. Browne, D. Fergusson, E. Webb, and S. Janson. 2009. Burden and Consequences of Child Maltreatment in High-Income Countries. *The Lancet*. 373(9657): 68-81.
- Huh, Myo Yeon. 200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Ph.D.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Jo, Bung Hwan and Gyeong Hui Im.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motional or Behavioral Problem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4): 729-746.
- Ju, So Young and Yang Hee Lee. 2008. Child Maltreatment and Resilienc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Function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3): 1-30.
- Ju, So Young and Yang Hee Lee. 2012. The Roles of Student-Teacher Attachment between Latent Delinquency, Negative Automatic Thought and Resilience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8): 103-142.
- Jun, Joo Ram. 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Resilience, Parental Behaviors, and Marital Conflict on a Child's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8(4): 135-153.
- Kim, Bit Na and Mi Kyoung Jin. 2014.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Abili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aternal Rearing Attitudes and Problematic Behaviors in Children.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7(3): 329-344.
- Kim, Bo Ra and Gue Min Lee. 2010. The Influence of Negative Life Events, Ego-Resiliency, and Pe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8(3): 1-24.
- Kim, Hyun Ah and Hye In Chang. 2017. Independent and Interactive Effects of Paternal Positive Parenting and Child Negative Emotionality on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41-62.
- Kim, Ji Hye and Nan Sook Yu.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Effects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School Life Adaptation on Problem Behavior.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1(1): 1-19.
- Kim, Jong Un and Jeong Nam Kang. 2020. The Effects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Ego-resilience and Anger Control Ability on Aggression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1): 237-256.

- Kim, Kyung Hee and Hyun Ju Ju. 2013. The Effects of Children Resilience on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7(3): 437-457.
- Kim, Min Seong and Shin Hee Park. 2015.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Childrens Ego-resilience in Child Community Centers: Focusing on the Relative and Moderating Effect of Child Community Center Teachers Support. *Asian Journal of Education*. 16(2): 55-82.
- Kim, Sang Won and Yang Hee Lee. 2018. Do Multiple Forms of Social Capital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Violence and Children's Maladaptive Behavi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0. <https://doi.org/10.1177/0886260518760009>
- Kim, Se Won. 2003.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bused Children's Adjustment.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Seok Eon and Ju Young Woo. 2017. Variables Related to the Adolescence Problem Behavior: A Relation Structural Model.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4(2): 247-261.
- Kim, Soo Jung and Ick Joong Chung. 2013. A Longitudinal Study of Persistent and Recency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on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3: 1-28.
- Kim, Sug Hyang and Hyung Mo Kim. 2018. The Effects of Adolescents' Experiences of Abuse Damage on Aggressiveness in the Convergence Era: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s of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331-340.
- Kim, Sun Hee. 2000. An Exploration on Causal Model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by Types of Behavior Problem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Ph.D.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Kim, Ye Sung. 2000. Influencing Factors on Bullying of Elementary School Pupil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Yun Hee and Hyoun K. Kim. 2019. Developmental Pathways to Adjustment Problems in Adolescent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6(6): 73-103.
-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 2018 Comprehensive Survey of Children in Korea.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69803248354_20190930092728.hwp&rs=/upload/viewer/result/202007/
- Lau, R. S. and G. W. Cheung. 2012. Estimating and Comparing Specific Mediation Effects in Complex Latent Variable Model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5(1): 3-16.
- Lee, Da Gyeong. 2015.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Depression in the Relation between the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Aggression. Ph.D.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Lee, Jeong Hwa and Hee Seung Han. 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ren's Ego-resiliency: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2(4): 77-93.
- Lee, Woon Kyung, Min Joo Kim, and Ki Bong Yun. 2018. The Effects of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s, and Community Child Center Teachers on School Adjustment of Low-income Adolescents Attending Community Child Centers: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3(4): 633-652.
- Lim, Yang Mi. 2013. Exploration of Variables Effecting on Poor Adolescents' Self-resilience and Self-esteem: focusing on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and the Quality of Peer and Teacher Relationship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5(2): 147-167.
- 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2019. 8. 26. 2019 1st National Survey Report on School Violence in Korea.
- Ministry of Education. 2020. The 4th Plan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50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National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Statistics Survey Report as of the End of 2018.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https://www.icareinfo.go.kr/info/research/researchDetail.do>
-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17. Panel Survey Plan for Regional Center for Children. <http://www.nypi.re.kr/atchfile/downloadAtchfile.do?vchkcode=m0i2l9o3tff4>
- Oh, Han Na, Jong Hoon Kim, and Hee Yeon Yi. 2018. The

-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Behavior Problems: Mediating Effect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0): 29-50.
- Olweus, D. 1979. Stability of Aggressive Reaction Patterns in Males: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4): 852-875.
- Park, Bo Kyung and Jee Un Noh. 2020.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on Early School-age Children's Problem Behaviors: Mediating Effect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41(2): 163-179.
- Park, Da Hye. 2018. Effects of Parental Abuse on Child Aggression: Focusing on the Moderated Effect of Peer Attachment.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Park, Gi Ryeong. 2018. A Meta-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Group Counseling Programs to Enhance Adolescent Resilience. Ph.D. Thesis. Kyonggi University.
- Park, Hyun Sun, Ji Myung Park, and Jung Eun Kim. 2014.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the Reciprocal Causal Relations between Child Abuse and Aggression: Using Fully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by Poverty Statu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9: 1-24.
- Park, Young Sook, Hyo Sun Choi, and So Young Min. 2017. The Impact of Adolescents' Perception of Community Environment on School Adaption: Focusing on the Youth Users of the Community Child Center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3(2): 79-101.
- Park, S. K. 2019. Current Status and Tasks of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Support Project.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Legislative and Policy Report. 28.
- Qi, W. 2019. Harsh Parenting and Child Aggression: Child Moral Disengagement as the Mediator and Negative Parental Attribution as the Moderator. *Child Abuse & Neglect*. 91: 12-22.
- Yoo, Sung Kyung and Hae Won Shim. 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189-206.
- You, Suk Kyung and Sun Ah Lim. 2015. Development Pathways from Abusive Parenting to Delinquency: The Mediating Role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Child Abuse & Neglect*. 46: 152-162.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교육부 보도자료. 2019년 8월 26일자.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 2020.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본계획(안).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50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김경희, 주현주. 2013. 아동의 회복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7(3): 437-457.
- 김민성, 박신희. 2015.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교사지지의 상대적 영향력과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6(2): 55-82.
- 김보라, 이규민. 2010. 부정적 생활사건,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48(3): 1-24.
- 김빛나, 진미경. 2014.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 17(3): 329-344.
- 김석연, 우주영. 2017.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기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및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4(2): 247-261.
- 김선희. 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수정, 정익중. 2013. 아동학대가 우울,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3: 1-28.
- 김숙향, 김형모. 2018. 청소년의 학대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2): 331-340.
- 김예성. 2000.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윤희, 김현경. 2019. 부모의 학대적 양육과 청소년의 낮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기 사회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과 성차. *한국과 미국 비교 연구. 청소년학연구*. 26(6): 73-103.

- 김중운, 강정남.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및 분노조절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237-256.
- 김지혜, 유난숙. 201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가정교육학회지. 31(1): 1-19.
- 김현아, 장혜인. 2017.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1): 41-62.
- 박기령. 2018. 청소년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박다혜. 2018.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박보경, 노지운. 2020. 부모의 양육행동이 학령 초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실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1(2): 163-179.
- 박선권.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 28.
- 박영숙, 최효선, 민소영. 2017. 청소년의 지역사회환경 인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2): 79-101.
- 박현선, 박지명, 김정은. 2014. 부모의 학대와 자녀의 공격성의 중단적 상호인과관계: 빈곤 및 비빈곤 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1-24.
- 보건복지부. 2019.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https://www.icareinfo.go.kr/info/research/researchDetail.do>
- 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383295388643_20131101174314.pdf&rs=/upload/viewer/result/202007/
- 아동권리보장원. 2017.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조사개요. <http://www.nypi.re.kr/atchfile/downloadAtchfile.do?vchcode=m0i2l9o3tff4>
- 오한나, 김중훈, 이희연. 2018.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관계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0): 29-50.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이다경.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중다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이운경, 김민주, 윤기봉. 2018. 부모, 또래,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3(4): 633-652.
- 이정화, 한희승. 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후기 남녀 아동의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22(4): 77-93.
- 임양미. 2013.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5(2): 147-167.
- 전주람. 2014. 아동의 탄력성,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135-153.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주소영, 이양희. 2008. 아동학대와 탄력성의 관계에서 인지기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9(3): 1-30.
- 주소영, 이양희. 2012. 청소년 잠재비행, 부정적 자동적 사고, 탄력성(resilience)의 관계에서 교사에착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9(8): 103-142.
- 최옥순, 민소영. 2020. 결핍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유대감의 조절효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을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11(1): 47-76.
- 최유남, 김지연, 신지인. 2018. 고위험 학대피해 경험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1): 1-18.
- 최정원, 조은영. 2020. 부모 학대와 또래 애착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1(1): 33-52.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Received: Jul. 31, 2020 / Revised: Aug. 20, 2020 / Accepted: Aug. 20, 2020

폭력적 양육방식과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

국문초록 아동의 공격적인 성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부모는 아동이 생애 초기부터 상호작용하는 대상으로 아동에게 가장 근접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폭력적인 양육을 받을 경우 아동의 공격성으로 이어지기 쉽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원への 접근이 제한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적 양육방식이 탄력성을 매개로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에 따라 그 경로가 변화되는지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패널을 사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 606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탄력성은 폭력적 양육방식과 공격성 간의 경로를 매개했으며, 그 경로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들이 특히 아동이 폭력과 같은 가정 내 위기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작동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으며, 이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제어 : 자아탄력성,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만족도, 공격성, 폭력적 양육방식

Profiles **Mun Seol Eom** : She is a Ph.D. candidate at Sungkyunkwan University. Her research areas of interest include parenting, parental burnout, home chaos, and child rights(crecenciams@naver.com).

Yang Hee Lee : S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at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She has published numerous articles and books on children's rights, child maltreatment,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leeyh@skku.edu).

Sang Won Kim : She recently joined the Family Translational Research Group. Her research areas of interest include child abuse, violence against children, family/peer/community relationships, social capital, post-traumatic growth, and child rights (sangwon.kim@nyu.edu).